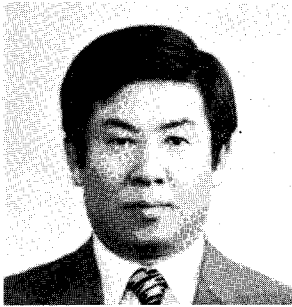


급성신우신염

우 영 남 / 한양대학병원 비뇨기과



신장은 소변을 만들어서 배설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몸에서 쓰고남은 불필요한 물질을 걸러내어 소변을 만드는 실질과 이 소변을 모아 배설하는 신우로 이루어져 있다.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긴 요관을 타고 내려가 방광에 모이게 되며, 여기에서 얼마간 정체되어 있다가 방광이 충만되면 요의를 느껴 요도를 통해 몸밖으로 배출하게 된다. 급성신우신염이란 세균이 신장의 실질과 신우를 모두 침범하여 급성 염증성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비뇨기과 영역에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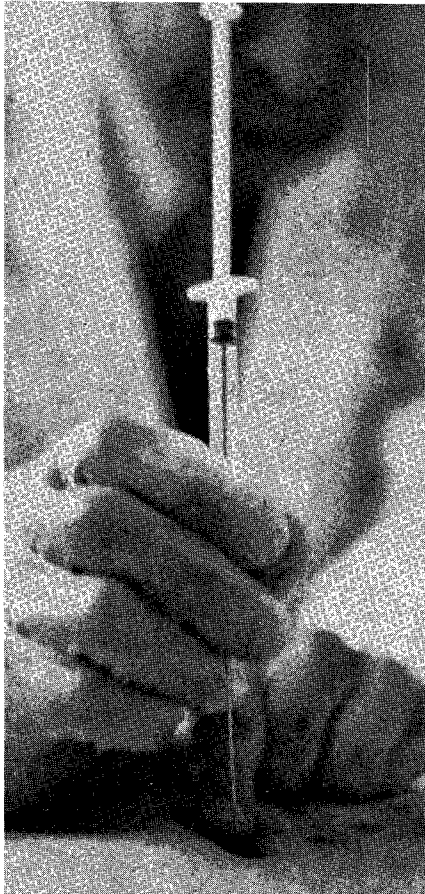
다.

세균이 신장을 침범하는 길은 앞에서 설명한 소변이 통로를 따라 끼꾸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혈관이나 주위 임파선을 통해 일어날 수도 있으나 매우 드물다.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요도의 길이가 매우 짧고 항문 및 질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요도주위의 병원균이 요도를 통해 방광내로 침입할 위험성이 높으며, 특히 성관계를 하는 동안에는 더욱 더 균이 침입할 위험성이 많다. 반면에 남자의 경우에는 요도의 길이가 길고 좁아든다. 따라서 신우신염이 어린 여자아이나 성생활이 활발한 젊은 여자에게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발병

방광으로 병원균이 침입하였다고 하여 모두 신장을 침범하여 염증성 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정상적으로 균에 대항할 수 있는 방어기전에 문제가 있거나 해부학적으로 요로계통에 이상이 있

는 경우 염증성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선행원인으로 방광요관역류가 비교적 흔하다. 정상적으로는 요관에서 방광으로 내려간 소변은 다시 요관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소변이 꺼꾸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 이를 방광요관역류라고 한다. 이러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방광으로 들어간 병원균이 쉽게 요관을 통해 신장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신우신염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신장 이하



요로에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폐색이 있는 경우에는 신장에 소변이 많이 고여 정체됨으로써 병원균이 침입하게 될 기회가 높게 되므로 신우신염을 유발할 수 있다.

증상과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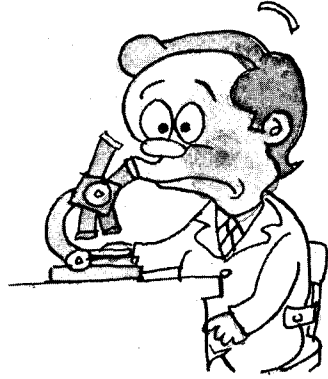
급성 신우신염의 증상은 갑자기 고열과 함께 오한이 생기면서 옆구리에 통증을 호소하게 되며, 방광염이 선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배뇨시 불편하며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를 못하는 등의 방광자극증세를 보인다. 이와 함께 기운이 없고 구도가 생기면서 설사를 하는 등의 소화기계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옆구리에 국한된 통증을 호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배전체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에는 균이 혈액내로 퍼지면서 패혈증을 유발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지면서 쇼크상태에 빠지게 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증상들이 생기면 빨리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며 자칫 시기를 놓쳐 위중한 상태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급성 신우신염은 환자의 증상과 소변검사로 대부분 진단이 가능하며 급성 신우신염으로 진단이 되면 바로 치료에 임하게 된다.

치료

급성 신우신염의 치료는 염증을 유발한 병원균에 잘 듣는 알맞은 항생제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며, 소변의 균배양검사로 이를 알 수 있다. 증상이 소실될때

“
 심한 경우에는 균이 혈액내로
 퍼지면서 패혈증을
 유발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지면서 속상태에
 빠지게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



까지는 절대안정을 요하며,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여야 한다. 또한 증상이 심하고 높은 고열이 있는 경우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입원을 필요로 한다. 치료가 이루어져 증상이 소실되고 소변검사에서도 더 이상 균이 배출되지 않게 되면 급성 신우신염을 일으키게 된 원인질환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특히 이러한 급성 신우신염이 여러번 있었던지 어린아이가 자주 고열이 있었던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질환의 유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된다. 이에 대한 검사로는 정맥으로 조영제를 주사맞고 사진을 여러장 촬영하여 신장과 요관, 방광 등을 보는 방법과 초음파로 신장과 요관의 변화를 보는 방법이 있으며, 또한 방광요관역류의 진단을 위해 방광에 조영제를 넣고 소변을 보면서 사진을 찍는 검사를 시행한다. 이러한 검사를 하여 요로계에 이상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로써 급성 신우신염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급성 신우신염의 대부분은 치료를 시작한 후 증상이 곧 소실되기는 하지만 환자들의 약 1/3에서는 증상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균이 계속 지속될 수 있으므로 치료를 하는 동안과 치료후 적어도 6개월간은 계속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급성 신우신염은 합병증을 유발할 특별한 문제가 없고 심각한 비뇨기계의 선행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하면 별다른 합병증없이 잘 치유된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환자의 경우에는 신장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으므로 급성 신우신염을 앓은 후 신장에 영구적인 타격을 주어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하며 치료후에도 철저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급성 신우신염은 조속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로서 대부분 특별한 합병증 없이 잘 치유가 되며, 치료후 이러한 질환을 유발하게 된 비뇨기계의 원인적 요소를 알아내어 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